

남해안 8개 시·군 세계적 관광지 육성

〈고흥·여수·순천·광양 포함〉

정부 11차 투자활성화 주요 내용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는 남해안 광역관광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남해안 광역관광은 전남과 경남 해안을 연결해 각 지역이 가진 관광, 문화, 역사, 시설 등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지역자원 활용, 경쟁력 제고=‘남해안 광역관광’은 개별 지자체의 소규모 단위 개발로는 다양한 관광콘텐츠 확보, 인프라 등 충분한 관광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역 특화자원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남해안 고흥·여수·순천·광양·남해·하동·통영·거제 등 8개 시·군을 시범권역으로 선정해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여수 돌산공원과 거북선대교, 여수해양공원 등을 돌아가는 해안 9km 구간에는 야간 경관 특화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또 섬진강 물길루트 양안에 문화예술벨트를 조성하고, 역사자원 연계·생태체험·어촌마을 등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해 즐길거리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해 숙박·휴양시설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 운행, 부정기 국제선 항공편 취항 등 남해안 교통편의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여기에도 무등산을 비롯한 도시 인근 산림과 국립공원 내에 야영장을 조성하고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숲속야영장을 만드는 데 용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가스·수소·전차 편의 증진=전국 도로변에 가스차와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휴게소 200개소가 2025년까지 구축된다. 수소·전기차의 보급이 활성화될 때까지 이들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등 인프라 구축

전라선 KTX증편·국제선 항공편 취항

무등산 등 국립공원 내 야영장 조성

전국 수소·전기차 충전 휴게소 200개

국토부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해 내년부터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에는 압축 천연가스(CNG) 버스 충전소도 2020년까지 6곳 이상 설치된다. 이와 함께 수소·전기차의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경도 경제자유구역 편입 추진=미래에셋 컨소시엄이 1조원을 투자하는 경도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편입이 오는 5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륙교 등 기반시설 및 세제 지원, 인·허가 의제, 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방안도 오는 3월 4일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하기로 했다.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에 자리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는 212만7188㎡ 면적으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3433억원을 매입해 오는 2029년까지 6567억원을 들여 워터파크, 요트 마린, 해상케이블카, 리조트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주)대명레저산업이 진도군 의신면 조사리에 3508억원을 투자해 조성중인 대규모 해양리조트 조성사업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관련 부처는 리조트를 신속히 해안감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수신탑의 고도 상향공사를 시행업체가 맡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현장대기 프로젝트

기업의 투자 의사에도 불구하고 규제 또는 기간간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5건, 2.1조원 지원

- ① 중형 교육·레저 융복합특구 개발, ② 진도 해양리조트 조성, ③ 안산 해양리조트 조성, ④ 여수 경도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 ⑤ 지역케이볼카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1.남해안 광역 관광

- 해안도로 끝단을 국립해양관광도로(483km)로 조성, 전담대·공원 설치
-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에 통해 숙박·휴양시설 등 민간투자 유도, 폐교·폐조선소 등 유휴시설을 관광시설로 전환



2.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 수소·전기차 복합휴게소 (2025년까지 200개소) 조성하여 재정 부담 없이 충전인프라를 조기 구축
-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친환경차 차량·충전소 보급계획



자료/관계부처 합동

연말뉴스

박균조 전 전남도 농정국장 등

7명 오늘 민주당 입당

박균조 전 전남도 농정국장 등 전직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7명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

27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30분 전남도당사 회의실에서 이개호 도당위원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박영선·박주민 의원, 김진 청년위원장, 임형률 대학생위원장 등 내외빈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직 공무원 및 지방의원 등 7명에 대한 입당식을 개최한다.

입당자는 박 전 국장과 최성현 전 구례부군수, 양재승 전 해남부군수, 김삼렬 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김학영 전 청와대 행정관, 이승욱 전 여수부시장, 강복수 보성군의회 등이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3시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전남도당 청년위·대학생위원회 발대식도 연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태극기 그리기 체험하는 어린이들

3·1절을 이틀 앞둔 27일 광주 북구청 로비에서 열린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체험에 참가한 중흥어린이집 학생들이 직원들과 함께 태극기 그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돼지가 쌀 이졌다’

지난해 농축산 생산액

돼지 6조7000억 쌀 제쳐

쌀값 폭락이 주원인

쌀이 지난해 농축산 생산액 1위 자리를 돼지에게 내줬다.

쌀 가격이 2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기 때문이다. 식습관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도 겹치면서 쌀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전망이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품목별 농업 생산액 가운데 1위는 돼지로, 6조7702억 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쌀 생산액은 전년(7조6972억 원)보다 16% 이상 급감하면서 6조4572억 원에 머물렀다. 돼지 다음의 2위로 물러났다.

한국인 주식인 쌀이 농축산물 생산액 1위 자리에서 밀려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추정치이기도 하지만 올해 역시 돼지 생산액(6천6003억 원)은 쌀(6조5372억 원)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비록 돼지와 쌀의 생산액 차이 자체는 크지 않지만 한국 농업 정책이 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쌀 농수가 양돈 농가보다 174배나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다.

쌀 생산액이 돼지에 ‘부동의 1위’ 자리를 내주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쌀값이 크게 하락해서다. 작년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은 1가마니, 80kg 기준으

로 12만9711원이었다.

2015년(15만659원)보다 14% 하락했으며, 1995년 이후 21년 만에 농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3만원 선이 붕괴했다. 지난해 수확기에 비가 자주 내리고 이상 고온 등으로 수발아(穗發芽·벼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 피해가 컸다.

이에 따라 작년 쌀 생산량은 419만7000t으로 전년보다 3% 감소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급량이 수요보다 많았고, 이는 쌀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있는 점도 쌀보다 돼지 생산액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1인당 연간 돼지 소비량은 23.3kg(추정치)으로 2011년(19kg) 이후 5년 사이 22%나 늘었다. 쌀 소비가 해마다 줄어 최저 기록을 경신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양곡연도(2016년 11월~2017년 10월) 기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9.6kg으로 전망됐다. 하루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약 163g 정도로, 밥 한 공기에 쌀 120g 정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 한 공기 반도 채 먹지 않는 셈이다.

이는 쌀 소비가 최대치에 달했던 1970년(373.7g)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2012년 70kg대가 붕괴한 후 5년 만에 앞자리수가 또 바뀌는 것이다.

/연합뉴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지난해 채용률 하락에

전남도, 오늘 대책 간담회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지난해 오히려 전년도보다 하락하자 전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28일 오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지역 청년들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위한 이전 공공기관, 지역대학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와 전남 소재 28개 대학 기획처(실)장과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전KDN 채용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한전 등 이전공공기관의 2017년 채용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2015년 도입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는 교육과 직무가 연계된

‘할 줄 아는 교육’이 핵심이다. 우선 공공기관에 도입되고 민간으로 점차 확산 중이다. 대학에서도 이에 맞춰 교육과정을 재편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 향후 상시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을 논의한다. 전남도는 간담회에서 대학에는 공공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강화, 전남지역 우수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탐방 확대 등을 당부하고, 이전 공공기관에는 지역인재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1.4%로, 2015년(14.2%)보다 2.8%포인트 낮아졌다.

문금주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특히 전남은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심한 만큼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의 상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원 최희석 · 정행진 · 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